대흥사료 현장세미나 개최
-어분사료 품질개선에 대하여-

대흥사료공업사(대표 강대준 : 한국 단미사료협회장)는 지난 3월20일 부산 본사사무실에서 '어분사료 품질개선 현장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양질의 어분사료를 공급해 온 동사는 배합사료 생산기술자들과 학계 등 여러 분야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어분사료의 생산공정과 품질개선, 선도유지, 미생물 오염관계, 생물학적 평가 등 여러가지를 토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날의 주제발표에서는 마점술 서울수의대 교수가 '어분의 미생물 오염', 김대진 동아대 축산학과 교수가 '어분의 가공방법에 따른 미생물 오염관계', 허환영 경북축산(주) 상무가 '어분의 사료적 가치'라는 제하에 각각 강연을 진행하였다.

또한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공장을 두루 다니며 어분생산 공정과 제조과정을 견학하였는데, 동사는 현재 초현대식 어분제조기를 증설하여 신선한 정어리 어분을 생산하고 있다.

△ 학계, 사료업계등 관련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대흥사료 현장세미나(서울대 수의과 대학 마정술 교수의 강의, 옆에 동아대 김대진교수, 경북축산 허환영상무의 모습이 보인다)

즉 1시간당 생고기 20톤을 쿡킹할 수 있는 쿡커와 초현대식 건조시설을 갖춰 1일 10시간 기준으로 생고기 200톤을 처리하여 제품 4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대흥사료는 품질의 개선과 선도유지, 규격제품을 생산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알팔파사료의 이용에 관한 발표회 개최

-ATO주최, 서린호텔에서

△ 가공된 알팔파사료

미국농업무역관(ATO : 관장 에반스 브라우니)은 최근 미국등지에서 단백질사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동물에 있어서 ALFALA사료의 이용에 관한 발표회를 지난 3월 26일 오후 5시 부터 서린호텔 3층에서 개최하였다.

정부, 학계, 사료업계, 일선 양축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이날 발표회에서 초빙된 Mr. G.E.JACOBY(미국 CTI부사장)는 알팔파는 단백질원이 높은 양질의 사료로 고대 이집트, 로마시대로 부터 가축의 사료로 널리 이용됐다고 전제하고 비타민, 광물질, U G.F의 높은 함량으로 생즙을 어린이들의 영양식으로도 이용한다고 밝히고 일본의 경우도 년간 40~50만톤을 미국에서 펠렛 또는 큐빅형태로 수입해 사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알팔파는 브로일러 사양에 있어 5%까지 첨가할 수 있으며 성장이 빠르고 도계했을때 건강한 노란색의 착색효과를 볼 수 있고, 산란계에서는 5~15%까지 첨가할 수 있고 생산성향상, 난황색갈, 대란성, 강건한 난각 등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양돈, 육우, 유우에서도 성장을 촉진하고 생산성의 증가, 번식율의 향상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5%를 강피류와 대체해서 실험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업계전문가는 내다보고 있다

미국측 실무자는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실험용 알팔파를 국내에 보내서 실험사료를 만들어 사양시험을 하기 위해 축협과 절충중에 있음을 밝혔다.

유전공학연구심포지움 성료

-연15명의 강사 참석하여 큰 성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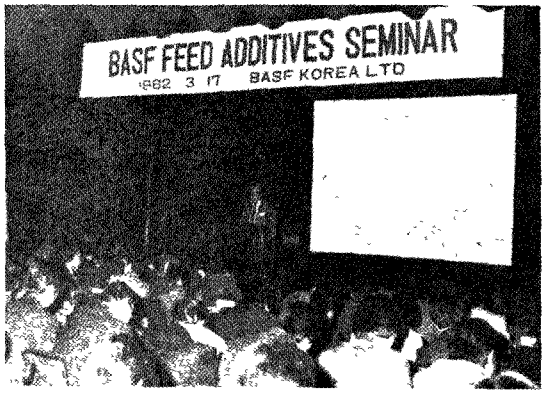
현대과학의 첨단분야인 유전공학을 농업부문에 도입하여 집중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전공학연구 심포지움이 3월18일과 19일 양일간 연 400여명의 청중과 15명의 강사가 참석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주최로 농진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유전공학의 현황과 전망에서 시작하여 농업에의 이용상황, DNA에 관한 제반사항, 식물세포의 유전자 조작과 의약품 개발에의 응용, 공업에의 이용현황, 가축에 있어서의 이용상황 등 전반적인 문제가 다루어진 이번 심포지움은 국내 일간지들도 크게 다룰 정도로 비중있는 행사이었다.

학계와 관계, 미국, 일본에서까지 강사가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청중들도 매우 진지한 태도를 보여 유전공학이 현대과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BASF세미나 성료

-사료첨가제 및 가축영양을 주제로 -



BASF社의 소개 및 가축영양 향상방안을 보급하기 위한 세미나가 BASF KOREA 社 주최로 지난 3월 17일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로호프 바스프 코리아 사장의 인사말과 지설하 국립종축장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축산분야에서의 BASF의 활동상황 및 화학 등 기타분야에서의 BASF 의 기여도 그리고 가축영양을 향상시켜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등이 소개되어 주목을받았다.

BASF코리아의 폰·벵거슨씨는 BASF 사의 소개를 통해 그들의 활동상황을 한눈에 보여 주었으며 BASF극동지역 담당인 헤어트랩프씨는 방부사료와 그 중요성을 소개해 갈채를 받았다.

한인규 박사는 비타민E와 셀레늄이 가축영양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강의하였고 이어 헤어트랩프씨가 펠렛사료와 펠렛바인더인 BASF IN을 소개한 후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을 가진 다음 만찬회로 들어갔다.

알팔파 관세인하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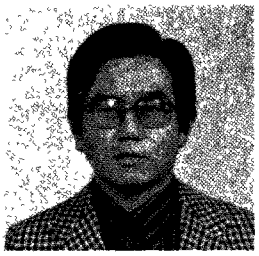
-사협, 20%에서 6%로 -

한국사료협회(회장 정태원)는 지난 3월25일 회장단회의를 열어 알팔파사료 수입에 따르는 20%의 관세율에 대해 논의하고 6%정도 수준으로 관세율을 인하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금년들어 순농후사료인 양계사료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조사료의 증대가 예상되어 이같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옥수수, 수수 등의 관세가 2%임에 비해 알팔파의 관세율은 20%로 너무 높은 편이다.

한협육용 종계 세미나 개최

-코브 협력회원 70여명 참석 -



(박준영 한협 대표)

한협종계장(대표 박준영)은 지난 3월13일 서울 사무소에서 한협 육용종계 사육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협 육용종계 코브에 대한 효율적인 사육관리를 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는 코브협력회원 7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는데 이번세미나에서 이병호 생산부장은 육용종계 코브에 대한 사양기본원칙과 육성기간중 체중관리에 대해, 이승우 영업부 차장은 최근몇년동안 육계가격 변동추이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 용준환 수의사는 종계 사육기간중 주요 질병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에스카린의 효능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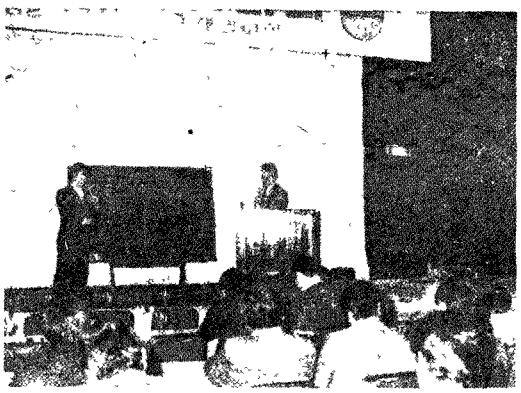
- 제일화학, 세미나 개최 -

에스카린의 효능 및 작용기전에 관한 세미나가 제일화학(대표 서정범) 주최로 지난 3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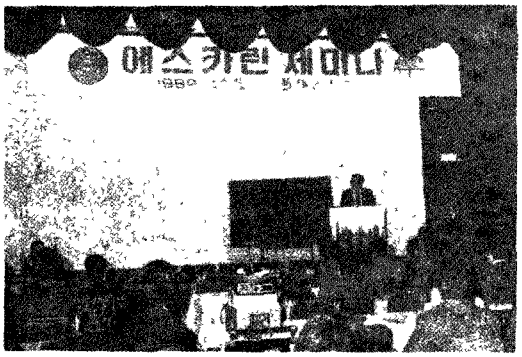
연인원 3백여명의 청중이 운집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강사 다수가 초청되어 성황을 이루었다.

서정범 사장의 인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스미스·클라인社의 사업소개 및 에스카린의 제원, 사료개발 및 사료의 이용성 증진방안과 가금의 질별상황 등이 발표되었다.

Hessels씨의 스미스·클라인社 소개가 있은 후 Henderickx 박사의 강의와 최진호 박사의 통역으로 에스카린의 효능 및 작용기전이 발표되었으며 김창원 박사의 국내사료개발, 한인규 박사의 수수의 사료적 가치 그리고 박근식 과장이 가금질병의 동향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의 순서를 갖고 만찬회로 들어갔다.



△ 서울과 부산서 개최된 제일화학 에스카린 세미나는 업계의 많은 관심속에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벨기에의 개발품인 에스카린의 주성분인 버지니아 마이신은 독특한 성상으로 큰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편 서정범사장은 그간 한국축산의 발전에 공헌한 헨더릭스박사에게 기념품을 증정하여 갈채를 받았다.

스미스, 클라인사는 152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현재 의약품 및 실험용 기자재 그리고 동물약품 등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이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마크현상모집

— 현상금 당선작 1편에 10만원 —

대한수의사회(회장 윤쾌병)는 수의계의 더욱 알찬 도약과 참신하고 새로운 상징아래 모든 회원들이 일체감을 갖게하고 단결과 친목을 도모코자 마크를 널리 현상모집한다.

• 응모요령

수의사의 전문직 상이나 수의사회의 성격을 가장 알맞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5월15일까지 2도이하의 색상으로 가로20cm, 세로20cm로 그려서 대한수의사회에 제출하되 도안내용을 별지에 설명해야 한다.

응모자격은 전국 각대학 수의학과 재학생과 등록회원에 한하며 당선작 1편에 10만원, 가작 1편에 2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한다.

국내에 전염성후두기관염(ILT) 발생

— 가축위생연구소 발표, 한번 발병되면 완전퇴치가 어려워 —

국내에서는 발병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ILT가 최근 강화를 비롯한 국내 양계장에서도 발병되었음이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이병은 한번 발병되면 그 농장은 상재지가 되어 완전퇴치가 거의 불가능한 질병이다.

ILT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 28페이지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네브라스카 축산세미나

-미국 축산의 현위치 소개-

한미수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네브라스카 축산세미나가 3월 21일 주한 미대사관 농업무역관(서울 을지로 1가 소재)에서 열렸다.

에반스 브라우니 농업무역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수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세미나는 매우 뜻깊은 일이며 양국간의 기술교류를 통해 축산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브라스카주 축산관계 인사 9명으로 구성된 강사진에는 한국인도 2명 포함되어 있어 친근감을 더했는데 강사진은 강연을 통해 시종 성의있는 태도로 미국의 축산현황과 시장성 등을 소개했다.

이들은 농업무역 사절단까지 겸하고 있어 3월 28일까지 한국에 체류하며 양국간의 축산기술 교류 및 기타 현안문제를 토의한 후 29일 대만의 타이페이를 향하여 떠났다.

달걀 하루 3～4개 먹어도 血中콜레스테롤 크게 늘지않는다

— 일본 국립營養硏서 인체실험 —

달걀이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기피당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日本에서 발표됐다.

일본국립영양연구소는 인체시험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보고했다. 동연구소는 지원한 성인남자 24명을 3개그룹으로 나눠 달걀을 하루에 각각 5개, 7개, 10개씩 10일동안 먹도록 했다.

실험전 이들 지원자의 콜레스테롤치는 혈액 1dl당 평균 1백88～1백99㎎이었다.

10일후 이들의 콜레스테롤치를 다시 측정한 결과 하루 5개씩 먹은 그룹은 7㎎, 7개씩 먹은 그룹은 9㎎, 10개씩 먹은 그룹은 8㎎이 상승해 있었다. 그런데 달걀 1개에는 보통 0.3g의 콜레스테롤이 함유돼 있기때문에 하루 5개를 먹으면 1.5g, 7개는 2.1g, 10개는 3g의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10일동안 많은 달걀을 먹고도 1천분의 7～9g만이 증가된 것은 달걀의 콜레스테롤 증가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며, 더구나 정상인의 혈중 콜레스테롤치는 하루 10㎎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더욱 문제가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버터나 라드같은 동물성지방을 하루60g씩 먹으면 1주일후 콜레스테롤치가 40%나 증가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日本국립영양연구소는 노인이라면 하루 달걀 1개정도, 육체적 활동이 활발한 사람은 3～4개까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제일제당 사료판매 1백만톤 돌파

-74년 이후 순판매량에서-

제일제당〈주〉(대표 이수빈)은 3월13일 인천 제2공장에서 이수빈 사장과 임직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합사료판매 1백만톤 돌파 기념식을 가졌다.

지난 74년2월10일 부산공장에서 사료를 생산하여 용인자연농원 양돈부에 공급을 시작한 이후 79년5월 인천2공장 가동과 함께 본격적인 전국판매에 돌입, 13일로 판매량만 1백만톤을 넘어선 것이다.

이를 연간 채식수로 환산하면 닭은 9백20만마리, 돼지는 71만4천마리, 소는 12만3천마리 분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제일제당은 4월 중에 전국판매 전진대회를 개최하여 판매력 신장을 위해 정진할 예정이다.

과학축산 양돈질병세미나 개최

-3 월30일, 국내 양돈업자들 관심 집중-

과학축산(대표 이태일)은 양돈업계의 질병방역관리를 위한 양돈질병세미나를 전국의 많은 양돈업자와 관련업계의 관심 속에 지난 3월 30일 오후 코리아나호텔 22층 그로리아 홀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양돈업에 있어서 질병과 방역, '82년도 축산경기 전망 등이 논의된 이날 세미나에서 강사로 초빙된 가축위생연구소 박정문 박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독을 철저히 하여 질병의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치료도 매우 중요해 항생제 투여시 내성에 특히 유의해 계획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Boeckmann박사) (이태일 대표) (강석진 전무)

이어서 세미나는 이태일사장의 통역으로 스위스 산도스사의 Boeckmann 박사의 양돈사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약제사용에 관한 강의와 축협중앙회 김철호과장의 1982년도 축산경기전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세미나는 전국의 양돈업자, 관련업계 인사등 200여명이 참석해 업계의 많은 관심을 보였다.

양계생산성 제고안 책자발간

-사료협회, 학계의 도움얻어-

한국사료협회(회장 정태원)는 양계불황 타개의 일환으로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생산성 제고방안(연구책임자 오봉국)'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였다.

총 9명의 연구진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이 책에는 채란양계 및 브로일러산업의 현황과 생산비 산출 및 경영성과분석 등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양계업의 합리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이번 책자발간을 위해 수고한 연구진은 다음과 같다.

연구책임자 : 오봉국 교수
공동연구자 : 김재홍 교수
〃 : 정근기 교수
〃 : 여정수 교수
〃 : 한성욱 교수
〃 : 민병렬 차장
연구보조자 : 이정구 조교
〃 : 최연호 조교
〃 : 손시환 조교

업계단신

○대한제당〈주〉(대표 민중기) : 이스라엘 잉어사료를 개발. 이사료는 펠렛사료로 5톤을 최소단위로 하여 주문에 의해 생산하고 있다.

○김성일(본회 감별분과 위원) : 스페인에 감별사 취업차 출국

○천호통산〈주〉(대표 김명근) : 김 정웅 상무를 3월 26일부로 전무이사로 승진발령. 김 정웅전무는 서울농대 축산과를 졸업하고, 한국카길 상무, 한국양돈〈주〉대표, 양돈협회 전무, 사료협회 기획부, 천호부화장 상무등을 역임하였다.

(김정웅 전무)

(정 석 희)

○남성산업〈주〉(대표 최인환) : Buffer제 메이커인 동사는 사세확장에 따라 정석희(전 삼덕산업사)씨를 기용, 또 동사는 스위스 로쉬의 착색제 Carophyll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세원사료〈주〉(대표 남문우) : 3월 12일부로 서울 사무소를 하기 장소로 이전

주소 : 성동구 성수2가 315-1 (새한수퍼퍼마켙 2층) ☎ 447-2268, 5410, 9126.

○한국바이엘화학〈주〉(대표 김길원) : 업무부에 최호상(연암축산 졸)씨를 기용하고 3월10일자로 사보「바이엘화학」82년 봄호를 발간하여 양축가에게 배포.

아울러 가축 및 가금의 광범위 하리치료제「카보풀비트」를 생산, 시판에 돌입.

「카보풀비트」는 비스므스와 카올린 및 활성탄을 주성분으로 하여 하리의 주치료제 및 보조치료제로써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신광순(전 보건전문대학교수)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공중보건학 교수로 부임.

○**선진사료〈주〉(대표 이원복)** : 3월 생산실적이 4,000M/T에 육박함과 아울러 이해범 차장을 영업부장으로 승진발령하고 손희영(전 한국축산과학 연구소)씨를 영업부에 특채.

구충제가 첨가된 구충사료를 양돈사료 품목에서 생산시판하고 선진양돈프로그램을 곧 선보일 예정

그리고 3월10일 근로자의 날에는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운동경기를 거행.

(윤쾌병 회장)

(이해범 부장)

○**윤쾌병(한국야쿠르트유업 대표)**: 일본의 유산균음료 관련업계 시찰을 마치고 지난 3월25일 귀국.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황영구)** : 각도별 한우 확대등록사업 추진을 위해 각도별로 8명을 신규채용

경기	박원각	(신구전문대 축산과)
강원	현재용	(상지대학 〃)
충북	이종헌	(충북대학 〃)
충남	임병순	(충남대학 〃)
전북	김윤식	(전북대학 〃)
전남	이진석	(전남대학 〃)
경북	주중하	(영남대학 〃)
경남	김인식	(경상대학 〃)

또한 유우등록담당 호남지부주재원에 이대원(전남대 축산과 졸)씨를 기용

○**〈주〉유한코락스(대표 홍병규)** : 3월 29일자로 서울사무실을 이전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42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빌딩 4층)

전화 : 794-6827~9

○**국립종축장 대전지장(지장장 : 박상문) 전화번호 변경** : 3월21일부터 44 국이 822국으로 전화국번변경

신전화번호 : (822) 1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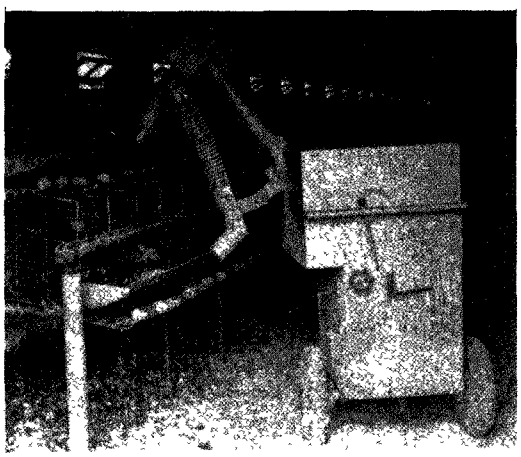
○**서원석(전 우성사료)** : 보거사료(주) 영업이사로 취임.

○**과학축산(대표 이태일)** : 업무에 황인구(전대 축산과 졸)씨를 특채

○**전북수의사회(회장 백영기)** : 최인혁 사무국장의 사임으로 지난 3월1일 김평길(전북농대 부속가축병원 수의사)씨가 신임 사무국장으로 취임하고 또한 전 김광수참사의 후임으로 육맹수씨가 참사로 임명

○**한국사료협회(회장 정태원)** : 전화국번 변경 ☎ (753) 6720, 6758~9

○**한국원종농원** : 2단 자동조절 급이기(사진)를 개발함에 따라 국내 시판은 물론 대만 등 동남아지역에 수출예정으로 있다.



○엘라이 릴리(엘랑코) 한국지사 : 타이란(타이로신)의 원료공급처인 동사는 사세확장에 따라 마케팅 담당으로 이순실(전 천호그룹) 씨를 기용하고 사무실 전화증설.

신전화번호 : (753) 7182~3
(754) 5389, 6940

(한백룡 전무)

(이 순 실)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회장 전동용) : 신임전무로 양돈연구회 회장과 동회 이사 및 감사를 역임한 바 있는 한백룡(한신상사 대표, 보은종축농장 대표) 씨를 기용하고 편집부차장에 이교훈(전 과장) 씨, 업무과장에 이상혁씨를 각각 승진 발령하고 업무부 경리사원으로 문병수(선린상고졸) 씨를 특채.

○제2회 아시아·대양주 축산학회 총회개최 : 제2회 아시아·대양주 축산학회(AAAP)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오는 11월10일 부터 4일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개최된다. 한국축산학회(회장 박종만) 에서는 회원들이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동학회 제3회 대회는 1985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학회 부회장인 서울농대 한인규 교수(서울대학교 농과대학내 전화〈수원〉 6 - 1890)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국동물약품〈주〉 (대표 김호석)항곰팡이제 도입시판 : 한국동물약품(주)은 무취, 무자극성의 항곰팡이 제제 Aflaban을 수입판매 개시하고 있다.

○박영인(미국 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장) : 미국 옥수수가공업계 시찰과 국내 옥수수가공 협회팀의 안내를 위해 3월20일 도미.

○〈주〉진양사료 (대표 강성배) : 새로운 시스템의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축산농가의 사양 및 경영기술 개발을 위한 전산화 업무추진을 위해 재무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책임경영기법을 도입, 경영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김상립(전 우성사료 상무이사, 한일농원 전무) 씨를 전무이사로 영입하고 생산과장에 손중천(전 서해농산) 씨와 영업부에 정광일(영남대졸) 씨를 각각 특채.

(김상립 전무)

(박만후 사장)

○과학축산시스템(대표 박만후) : 각종 기기 및 기구 수입판매원인 과학축산시스템은 우성빌딩 203호에서 101호로 사무실을 이전

주소 : 서울 성동구 능동 246 - 10 (우성 빌딩 101호)
전화 : 445 - 02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보현) : 정찬길 농업유통연구실장을 수석연구원으로 위촉하고 김한구 박사를 농촌사회 연구실장에, 김봉구 박사를 자원경제연구실장에 새로 임명.

○신한상교(대표 이원달) : 낙농과 양돈 등 복합 축산경영을 위해 세부계획을 조사검토 중